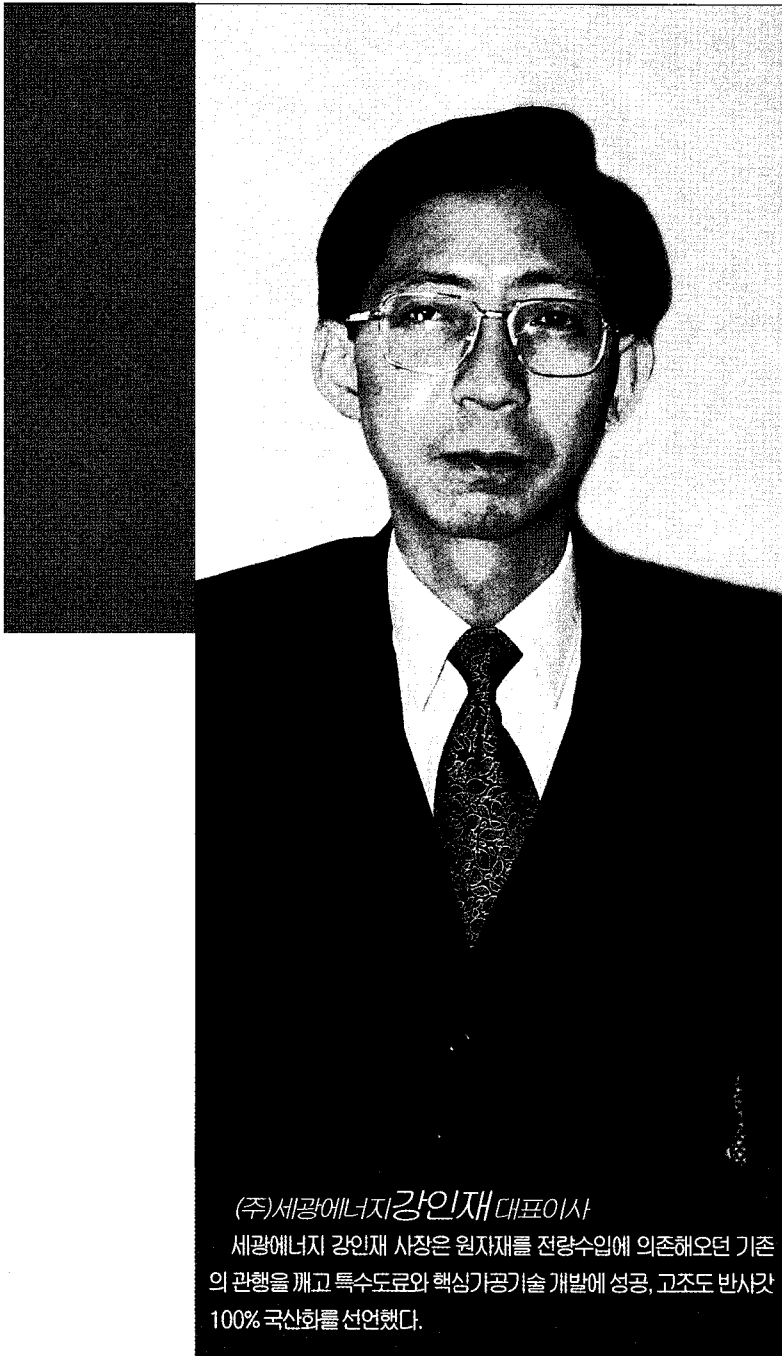


기술력 인정받으며 고조도 반사갓 100% 국산화 선언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주)세광에너지 **강인재** 대표이사
세광에너지 강인재 사장은 원자재를 전량수입에 의존해오던 기존
의 관행을 깨고 특수도료와 핵심가공기술 개발에 성공, 고조도 반사갓
100% 국산화를 선언했다.

또 특수도료와 가공기술로 밀착성을 높여 내구성이 우수하
며, 생산공정을 자동화해 대량생산체계를 갖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특수도료와 가공기술로 국산신기술(KT)인정 받아

세광에너지는 지난 98년 설립, 제품 개발을 완료한 지 불과 1
년 남짓밖에 안되었지만 제품의 우수성만큼은 곳곳에서 인정받
고 있다. 반사갓 분야에선 유일하게 과학기술부로부터 국산신
기술인정(KT)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업계 최초로 조달청의
우수제품에 등록됐다.

에너지관리공단에는 반사갓 4종이 지난 99년과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등록됐다. 가
장 최근에는 작년 12월 경기도 주최로 열린 에너지절약박람회
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강 사장은 “우리나라의 조명기기 사용전력 용량을 감안할 때
고효율기기로 교체만 해도 50만Kw 화력발전소 3개의 증설비
용이 절감된다”며 “이 사업이 국가에너지절약시책에 조금이나

강인재 사장은 “다른 조명기기와 함께 고조도 반사갓도 ESCO사업 수요가 큰 만큼을 한해는 ESCO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의 파트너로서 같이 성장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① 이 회사가 개발한 고조도 반사갓 'WHITE LUX' 는 개발 1년여만에 KT마크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우수조달물자 등으로 인정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② 세광에너지는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 자사브랜드를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③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청로 열린 에너지절약박람회에서 강인재 사장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업 초창기엔 여느 업체들처럼 수입품을 취급했지만 박리 현상이나 변색으로 반사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발견해 선진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수도로 개발에 착수했다.
 1억5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페인트회사인 한진화학과 공동으로 1년 넘게 연구한 끝에 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수입대체 이룬 고조도 반사갓으로 조명시장에서 승부

지난해 12월 완료된 감사원 조명교체공사에 납품한 것을 계기로 세광에너지의 반사갓은 큰 호평을 받으며 감사원 적극권장품목이 됐다. 감사원이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수입대체품으로는 적격이라고 평가하고 회사와 제품을 인정해준 것이다.
 강 사장은 “다른 조명기기와 마찬가지로 고조도 반사갓도 ESCO사업 수요가 큰 만큼 올 한해는 ESCO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워낙 저가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효율이 낮은 비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ESCO사업에서도 저가자재의 유통

이 관행이 되다시피 해 부품업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데 이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또 “제조업체를 ESCO나 공사업체들이 사업의 파트너로서 같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한다”며 많은 조명제조업체들이 겪고있는 애로와 바램을 피력했다.

150평 규모의 일산공장에 한 해 55만개의 생산체계를 갖춘 세광에너지는 요즘 학교나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가지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다른 조명기기도 이것저것 취급하다 보면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아지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힘으로 수입대체를 이루었고 오직 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로 만족합니다.”

세광에너지는 최근들어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국시장으로도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